

권영택 영양군수 임초 만난 영양 풍력발전단지 건설 어찌하오리까...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군의 랜드마크이자 미래 중요자원

영양 꿈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고무풍선 되나...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환경적 보전 가치 우수한
산림지역 대규모 훼손...
생태적 연속성 단절 우려
환경적 측면 부적절 판단



사진은 지난 4월 10일 권영택 영양군수가 영양군청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양군이 추진해온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다.

대구환경청이 2일 영양군이 협의요청한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보인 탓이다.

영양군은 풍력사업업체 AWP와 함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대구환경청 부적절 판단

영양군 영양읍 무장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km를 설치 등을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환경청에 협의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대구환경청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지역이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구환경청 측은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청은 "영양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성향·권윤동 기자

무엇보다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와 이를 위한 진입도로 등이 설치돼 최대높이가 18m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사면이 발생하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우수한 식생을 훼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 생태축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 등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해 작성한 지도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식생우수 지역 등을 1등급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태 단절요인 발생

대구환경청은 "해당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곳이 운영 중이고 다른 2개소는 공사 중인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생태 단절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영양군은 2009년 4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59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운영 중인 가운데 추가로 27기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모두 130기의 풍력발전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풍력발전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해명하 바 있다.

권 군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앞으로 군의 랜드마크이자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군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기 외에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의 경우 입지, 환경보전 방안, 사업규모, 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 입지 선정 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 보유지역 회피, 개발규모 최소화, 주민의견의 적정수렴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만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경북형 을지연습' 한국 최고 을지연습

정부서울종합청사
국제회의장서 열린
총리 주재 보고회
지자체 대표 보고

경북도가 2일 정부서울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에서 전국 지자체 대표로 올해 을지연습 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준비보고회는 중앙부처 장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각 군 참모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는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국가정

보원, 경북도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경북형 비상훈련인 '체인지(體認知)' 차례표를 소개했다. '體認知(Change)' 철학은 영어 'change'를 발음하면 '체인지'로 읽힌다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변화 지향적 지식관이다.

경북도는 차례표에서 △미래 전쟁 양상과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전시 전환 절차 준비(體) △북한군 위협 및 효과적인 대처 방안 모색을 통한 안보 현실 인식(認) △각종 상황을 가정한 주민 참여형 실제훈련 실시를 통한 비상대비 절차 숙지(知) 등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는 △도청 이전 이후 새롭게 구축된 총무시설의 전시지원 시스템 조기 완성 △방사능 누출, 미사일 및 화생방 공격, 고층 아파트 화재, 다중 이용시설 테러 등을 가정한 주민참여 실제 훈련 집중 실시 △을지연습 기간 중 시도 최초로 구성되는 민간 전문 평가관 활용 등을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오는 21~24일까지 4일간 열린다.

이번 '연습'에서는 전쟁 상황을 고려한 전시 직제 전환 절차 연습,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훈련, 주민참여 실제 훈련 및 복합 재난 대비 상황조치 연습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김성용 기자



대구서 중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답안지 고쳐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5일 A중학교 국어 담당 교사 B씨가 기말고사가 끝난 뒤 자신이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들의 국어 과목 OMR(광학 마크 판독기) 카드 답안지 일부를 직접 고쳤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경북에서 농UP하기!

경북농민사관학교

지식 ▲ 희망 ▲ 부농의 꿈 ▲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전국 최고의 단계별 교육, 특성화 교육, 현장중심 교육기관입니다.

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 | 054-880-3333
(재)경북농민사관학교 | 054-383-6903

“예상 넘어선 초고강도 전방위 규제”...주택시장에 ‘직격탄’



김경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협회의에서 머뭇말을 하고 있다.

8·2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하고 촘촘하다”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과 맞물려 침체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의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고 규제 영역도 금융, 청약, 재건축 등을 총망라해 거래·가격이 장기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는 하반기 공급물량·금리인상 등 경기 하방압력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심리가 위축돼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

문위원은 2일 “세금과 대출, 재건축, 청약 등 각 분야를 아우른 12년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이라며 “시장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도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이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그 밖의 과열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규제가 꽤 광범위하다”며 “정부가 의도한 수준의 진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역시 “재개발 규제도 최초로 시행되고 양도세 등 세제부분도 예상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등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선 11·3대책, 6·19대책 등 두 번의 규제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늦은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지난 정책 때 담겼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 내성만 더 커진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도의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초강수 규제로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이나 매도가 막혀버린 만큼 이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김규정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되고 추가 구입도 힘들어지면서 거래가 제한될 것”이라며 “거래가 가격을 선행하니 이후 가격도 정체 또는 안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안정 효과도 이전 6·19 대책 때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서울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을 이끌었던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상승 등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심리가 더 위축돼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금리까지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에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되면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하반기 입주 물량 압박과 금리인상·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하방압력, 조정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더 강하게 규제를 쏟아낸 것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국한해 적용된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이 제외되고 재건축 규제도 거래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단기 정책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래 교수는 “다주택 중과 등 일부 규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해 불필요한 소유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그라야 풍선효과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재건축 규제에 있어서도 거래적인 부분만 규제하고 용적률·건폐율 강화, 소형평수 배치 의무 등 시스템적인 규제는 배제해 “재건축이 여전히 돈이 된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이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돼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인터넷 청약 추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는 총 2784실 모집에 9만8904건이 접수됐다. 이 오피스텔은 총 6개 군으로 나눠 1인당 6개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현장에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해 청약자의 불평이 더해지고 과장광고 피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변경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당첨자 발표날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분양권 야(夜)시장’이 벌어지는 등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전매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되면 이 같은 청약과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정부는 2008년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2002년 8월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 말 강남 3구를 끝으로 사실상 없어지면서 입주 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렸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분양수익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재당첨 금지...투기성 청약 막는다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당첨자는 2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일반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 줄어들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분양받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선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제외 없이 일부 무주택자가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 등 일반 주택에 대해선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을 가점제를 통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가점제 비율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00%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현재는 75%)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75%, 85㎡초과 주택에선 30%가 적용된다.

올해 11월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수도권과 같이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방의 민간택지는 6개월 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신영 △수영 △동래 △남구 △부산신 △기장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이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설정된다. 뉴스

한국당, 혁신위선언문...“서민, 잘 넣었다”vs“탄핵 이야기 없다”

비주류 “홍준표 색 짙다”
“반성 원인 빠졌다” 반발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선언문에 대해 ‘서민경제’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당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혁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회는 이날 ‘혁신선언문’을 통해 당 체질을 신보수주의의 가치중심 정당으로 환골탈태한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1948년 건국’을 강조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역사관이 담겨있으며 광장 민주주의를 견제하며 촛불집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어있다.

한편으로는 ‘서민중심경제’를 강조해 복지를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나 인적 청산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서민중심경제’가 포함됐다는 말에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민경제’란 개념이 선언문에 포함되면서 한 혁신위원이 사퇴했다는 소식에 대해 “서민경제를 잘하겠다는게 무슨 문

제냐”라고 반문하며 “불황이고 취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서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비주류 인사들은 선언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파의 가치에 크게 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다듬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언문 내용이 홍준표 대표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던 주장과 비슷하다”며 “과연 우파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게 맞느냐는 점에서는 감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한 비주류 의원도 “무엇을 잘못했기에 혁신을 하게 됐는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탄핵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인적청산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사들은 혁신위의 선언문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도부에 속하는 한 인사는 “앞으로 혁신위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외의 인사들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대답을 피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의 지지율이 낮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라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홍준표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 선불리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어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文대통령, 휴가중 인니 국방장관 접견...방산협력 강조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한국 최초 해외수출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리아미잘드 리아푸드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접견에는 우리 측 김판규 해군참모총장과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이 참석, 인도네시아는 아데 수만디 해군참모총장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니대사가 참석했다.(사진=정외대 제공)

文대통령, 휴가 중임에도 먼저 공개 일정 제안해 한국형 방위산업 수출의지 국방 대응 모습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여름휴가 도중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대외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휴가 중임에도 국정을 챙기고 국방 관련 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리아미잘드 리아푸드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공관 영접실에서 접견했다고 운영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진해 해군기지 군 휴양

소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으로 현장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잠수함 인도식을 잘 봤느냐”며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협력하고 확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협력이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아푸드 국방장관은 “무척 기쁘다. 오늘이 배는 첫번째 배고 마지막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준비 중인데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오늘이 이 인도식은 매우 역사적 행사다. 앞으로 양국간 방산 협력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방분야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다”며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인수한 나라가 되었는데 기쁘게 협의했던

1차 잠수함 협력사업에 이어 2차 잠수함 사업 추진 시에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 관계에 비유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부가 미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해 만든 중견국 국가협의체,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방산 협력이 무기 구입은 물론 기술협력, 교육훈련 분야 협력 등으로 발전해나가기 좋겠다”면서 “그리고 조국 위도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경북 화장품산업 동남아 시장 공략

동남아 화장품시장거점 확보 위한 교류단 파견

경북화장품 산업이 동남아 진출 수출 교두보 마련에 심혈을 쏟는다.

도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행사에서 경북화장품산업의 동남아 수출시장을 공략한다.

수출 발판을 위해 6일까지 교류단을 파견한다.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화장품산업T/F팀 2명과 경산시 2명, 대구한의대학교 K-뷰티사업단 및 교수 3명, 도내 화장품기업대표 3명 등 총 11명의 대규모 교류단을 파견했다.

2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시 국제협력 주관부서이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주관하는 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원(ITPC)을 방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의 성공적인 행사지원과 호찌민 시내에 개설예정인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설치·운영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 호찌민 카라벨리 사이공 호텔(Caravelle Saigon Hotel)에서 이번 교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K-뷰티 화장품산업 호찌민 현지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기업설명회는 베트남 정부와 호찌민 현지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 소속 기술혁신원(SATI : State Agency for Technology Innovation)의 원장인 트란 부 하이(Tran Vu Hai)가 호찌민

현지 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해 열리게 됐다. 경북 교류단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 개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호찌민과 다낭에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개설 △엑스포 행사장 내 'K-뷰티 수출상담실 운영 △화장품제조 기술거래 및 베트남 제조공장 설립 △경북화장품 공동 브랜드화 및 뷰티기술교육사업추진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3일에는 호찌민 뷰티 아카데미 교육현장을 실시,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후 보지지를 사전 점검한 후 다낭으로 이동한다.

4일에는 다낭시청을 방문해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화장품 위생검사 및 통관 지원, 뷰티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요청한다.

다낭시내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후보지를 차례로 현지 조사한다.

5일에는 다낭시의 화장품시장 자문위원을 만나 현지 동향, 화장품 시장의 동향과 K-뷰티 해외상설판매장 설치장소 후보지 등에 관해 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파견한 교류단과의 합동 자체평가회의를 거친 후 귀국한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위축된 중국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한류 열풍으로 한국화장품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호찌민과 다낭에 판매망을 확보해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영국 AMRC 탄소산업 협력



경북도-AMRC간 탄소 산업분야 인력 양성 공동기술개발 협력

경북도가 2일 도청을 방문한 영국 'AMRC Factory 2050' 일행을 면담하고 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AMRC(The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는 2001년 보잉사와 셰필드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보잉,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등 세계 굴지의 100여개 회원기업이 제품연구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세계적인

항공·복합재 분야 연구소다.

첨단소재·자동차·로봇·항공산업 등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작업과 공정의 최적화, 새로운 제품생산 방법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AMRC 본사를 찾아 연구소의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다.

탄소산업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도입과 부족한 탄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만남에서 △AMRC Factory 2050과 공동기술개발 및 시스템 도입 △인력양성 트레이

닝 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 △지역대- 셰필드대 교환학생 계획표(복수 석사사 학위제) 마련 등을 논의했다. 도는 구미와 경산에 설립예정인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인증센터와 탄소복합재 설계해석 기술지원 센터와 연계한다.

지역 내 탄소산업 관련 장비·인력 등 인프라를 '경북 Factory 2050'을 중심으로 결집해 탄소복합재 상용화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계적인 기업과 제품 공동개발 등 업무협력이 이뤄져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판로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용 기자

호찌민-경주엑스포 공식 '알림 그림' 공개

평화, 상생, 우호, 친화의 의미 가진 4개의 사각형 모여 한국과 베트남 양국 진정한 화합 완성한다는 의미를 표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행사 공식 알림 그림을 확정공개 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홍보대사인 한류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등장하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사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식 알림 그림은 이미지를 완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네모 모양의 픽셀(Pixel)에서 착안했다.

평화(파란색), 상생(연두), 우호(주황), 친화(분홍)의 의미를 가진 4개의 사각형이 모여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진정한 화합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사각형 안의 이미지는 양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산과 전통의상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공식 알림 그림은 앞으로 행사를 홍보하는 어디에서나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대표하는 얼굴 역할을 하게 된다.

공식 알림 그림과 홍보대사인 블락비(Block B)가 결합된 형태의 알림 그림은 젊은 층이 많이 보이는 행사나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활용한다.

행사공식 엠블럼은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널리 사용되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알리고 있다.

엠블럼 상단의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를 밝혀 주는 새로운 비전을 표현한다.

대지에 펼쳐진 호찌민과 경주의 대표적 상징물들은 화합과 어울림, 상생을 의미하며 밝고 다양한 색깔의 빛은 문화와 다양성, 문화엑스포의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마스코트는 여성과 남성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여성 마스코트는 따뜻하고 순수한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한국소녀와 베트남 여성의 상징이자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베트남 소녀를 콘셉트로 친근감있게 디자인했다.

남성 마스코트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과 이념이 바탕이 되었던 화랑도 정신을 알리기 위해 신라시대 화랑과 전통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베트남 소녀를 콘셉트로 디자인 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또한 한류 인기 아이돌 그룹 블락비(Block B)가 출연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홍보영상의 후반 작업을 마치고 일간에 공개 했다.

이 홍보영상은 지코, 박경, 피오, 태일, 비범, 재호, 유권 등 멤버 7명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7명의 멤버들은 베트남과 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들을 사용하며 회견을 하듯 행사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홍보영상은 TV와 스마트폰, 유튜브, SNS, 옥외 홍보용 등으로 편집돼 국내외에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홍보대사 블락비는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수부문 베스트 스타상 등을 수상하며 동남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용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으로
국민의건강이 활짝 웃습니다!

금연, 이제 치료비 부담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로 성공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병·의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매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문의
1577-1000



대구공항에 한의약 홍보관 문 연다

지방공항 대상 첫 공모사업에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선정



대구공항 한의약 홍보관 전경

대구국제공항에 한의약 홍보관이 문을 연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한의약 홍보관 운영' 공모사업에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

원센터는 3일 오전 대구국제공항 2층에서 '한의약 홍보관' 개관식을 한다.

'한의약 홍보관'은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상으로 한방의료 체험과 사상 체질에 따른 한방차 시음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노출시켜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 1회 한의사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방한 외국인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대구국제공항에 '한의약 홍보관'이 설치된 것은 대구시가 360년 한의약 역사와 인프라, 대구국제공항의 높은 국제선 이용률과 비수도권 최초로 해외환자 2만1100여명의 유치실적 덕분"이라며 "지방공항으로서는 첫 추진사업이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 "대구에는 현재 한의약 의료관광객이 전체 의료관광객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홍보관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뉘시스 한방의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박진석 센터장은 "한의약 홍보관은 특수목적 관광객(SIT) 및 개별여행객(FIT)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한의약 우수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 등 한의약 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사태 등 대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구국제공항은 지난해 상반기 25만명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63만명이 국제선을 이용해 149.2%라는 전국 최고 이용률을 기록했다.

지방공항 중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유치한 수치다.

대구국제공항은 일본과 동남아 등 국제선 다변화로 작년에 전체 이용객이 처음으로 253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더 많은 이용객이 예상돼 홍보관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유학생 관광 아카데미 수료식

중 유학생 '대구관광 스타트업 아카데미' 마무리

대구 인바운드 여행업계 활성화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시와 (사)대구관광부로는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인바운드 여행업계 활성화와 대구 맞춤형 관광 인력자원 양성을 위해 중국 유학생 25명을 선발, 여행업 실무 강의와 대구관광 현장실습 등 총 60시간 과정의 '대구관광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주춤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지역을 잘 아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며 "교육 수료 후에 대구시는 이들에게 지역 여행사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관광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전략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나 중국어 통역, 중국시장 온라인 홍보, 오피레이터 등 다양한 역할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대구시는 교육기간 유학생들이 만든 관광상품 중 우수상품을 선발해 지역 중국전담 여행사와 연계 판매할 예정이며 집중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위탁으로 이번 사업을 주관한 대구관광부로 이종덕 대표이사는 "관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내 관광 창업이 확산되고 뿌리를 내려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박동신 관광과장은 "과거 중국 유학생들이 개인 SNS를 활용해 대구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간접 마케팅에서 진일보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관광객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대구 인바운드 여행업계 활성화와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이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대구서 국내 최대 SW대회 개최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대회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서 열린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대회'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W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ICT융합 제품 제작 등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국 8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SW대회이다.

전국 8개 SW융합클러스터는 대구 수성구 경계 판교를 비롯해 부산 센텀,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북 전주, 대전 대덕, 전남·광주 나주 등이다.

해카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42.195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창작제품을 만들어 내는 협업 프로젝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

명, 소프트웨어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생활과 산업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SW융합 문제해결 서비스'과제가 주어진다"며 "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실생활 개선 서비스',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기반 수자원 활용 및 수해예방 서비스' 등 총 3가지 과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SW개발자를 비롯해 예비창업자, 학생 등 전국에서 360여명, 총 60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개팀에는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 1개 팀은 글로벌 SW산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지난 달 31일부터 개인 참가자 예비접수가 진행 중이며 팀 단위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누리집(www.sw-hackathon.com)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최대의 SW인재 배출의 장(場)인 대한민국 해카톤 대회에 우리 지역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전을 기대한다"며 "이 대회를 통해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생명 위협하는 폭염 예방법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내거리 재난 예방용 안내 전광판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알리는 영상이 전광판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오늘 흐린 물 나올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 저수율 감소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공급 조정에 따른 고산정수장 생산량 감산을 위한 수계조정(2단계) 작업에 따른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동구, 북구, 수성구 17개동 지역에 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어 사전에 수도물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는 동구 신암2, 3, 4동과 수성구 수성1, 2, 3, 4가동 전역이다. 또 동구 효목2동과 신천2동을 비롯해 북구 대현동, 수성구 범어2, 3동, 탄촌1, 2동, 황금1, 2동, 중동 등 일부다.

이상하 기자

힐링차랑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담아내는 힐링의 고장 달성으로 오십시오!

사각이는 나뭇잎들과 들꽃향기의 노래 소리, 여름 모를 들꽃들과 내리 앉은 별들의 소근거림...
 흥겨운 가득한 길을 비우고 걸다보면 어느새 체위지는 또 다른 삶의 의미들,
 옥연지 승해공원 들레길을 걸어 태진사와 양계류, 장꽃이 반기는 비수산을 지나 사문전 주막촌, 마비정 백피마을
 달성군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lower 대구에서 힐링하세요

지역 유명 관광지 중 비수산 숲속 오토캠핑장

국립공원인 비수산 국립공원 내 미비정 백피마을

대구시 구미시 북부권 다천사와 비수산 관광지

달성군

고령군 민주시민·단체협의회 “고령 공무원 죽음 진상규명 촉구”

고령군 민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청 별관 앞 기자회견

관급공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고령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 등이 경찰에 숨진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령군 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임의동행 후 발생한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11시간 동안의 수사로 숨진 공무원은 30년 넘게 봉사한 공무원이자 고령의 주민이었다”면서 “우리는 경찰의 임의동행 외에 고인이 세상을 버릴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이 근무 중이던 고인을 데려간 뒤 11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만 접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에게 “근무 중의 공무원을 데려 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11시간 임의동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고성이 오갔다는 살인적 감압조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군을 부패사회로 인식시킨 압수수색과 동시에 방영된 뉴스보도, 방송 카메라를 대동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부당한 압박 의혹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병유 고령군 민주시민·단체협의회장은 “유가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고령의 명예 또한 실추됐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을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0일 고령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령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고령군청 공무원 A(55)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다음날인 11일 밤 0시 40분까지 11시간 동안 경산에 있는 경북경찰청 사무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47분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한 도로 옆 공터의 나무에서 목을 매고 숨졌다.

경북경찰청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고



고령군 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임의동행 후 발생한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령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해 9억9000만원 규모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공사하지 않고 자칫 없는 업체에 하도급 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손영석 기자

영일대해수욕장 야영금지...“백사장 오염 우려”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텐트를 설치해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 후에는 영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

포항시, 피서객 안전 조치

지난 1일 김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전모씨(23)는 관리자로부터 “백사장에서 야영을 할 수 없으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텐트를 치워야 했다.

하지만 전씨는 야영금지 구역임을 모르고 텐트를 친 것은 잘못이지만 포항시의 정책이 불만스러웠다.

전 씨는 “자신과 같은 젊은층들과 알뜰 피서객들은 10만원을 오르내리는 민박을 이용하기 보단 야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주변에 야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야영 시설이 없

어 알뜰 피서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씨 일행처럼 야영 준비를 해 온 다른 많은 피서객들도 “무슨 이유로 야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측은 영일대해수욕장 야영금지 조치에 대해 “백사장 오염 우려와 피서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관내에는 6개 지정 해수욕장 중 화진과 칠포해수욕장에서는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서 “영일대해수욕장은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야영을 한 후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들로 ‘백사장이 오염될 수 있다’는 민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중에는 유리병들이 포함되어 있어 파손된 병에 피서객들이 다칠 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영천 식당서 방화 추정 불

2일 오전 2시 28분쯤 영천시 상신기길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점포 1동(105㎡)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차출산 4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

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경은 기자

요양병원서 ‘박스 테이프’로 묶어 환자 이송...인권침해 논란

달서구 보건소 뒤늦게 진상파악

대구의 한 노인요양병원 측이 박스 테이프에 결박한 채 환자를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2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께 A요양병원 측이 환자를 테이프에 묶은 채 이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담당 보건소인 달서구 보건소가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섰다.

보건소 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80여명 가량의 노인 환자들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A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테이프에 묶였다.

B병원 측은 폐업을 앞두고 A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병원 관계자는 “B병원에서 욕창방지 패드와 노인 환자에게 덮어 준 모포를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병원이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에 환자나 환자 가족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영우 기자

대구서 중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답안지 고쳐

대구교육청 전격 감사

대구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사실이 알려져 말썬이다.

대구교육청은 문제가 생긴 중학교와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5일 A중학교 국어 담당 교사 B씨가 기말고사가 끝난 뒤 자신이 수업에 맡은 1학년 학생들의 국어 과목 OMR(광학 마크 관독기) 카드 답안지 일부를 직접 고쳤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소문이 돌아 학교 측이 OMR 카드를 확

인해 밝혀지게 됐다.

B교사는 학생 수검여명의 OMR 카드에서 2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 테이프를 지운 뒤 정답으로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사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친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오답을 적어 답안지를 고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신라능묘 ‘경주 서봉총’ 내일 공개

<1면에 이어>

남북은 봉토와 매장주체부 모두가 북분의 절반 정도의 규모이며, 목곽은 지하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이렇게 규모와 구조의 차이가 뚜렷한 대형분과 소형분을 연결한 신라 능묘는 유일한 것으로, 신라 연접분의 축조 방식, 피장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또 “호석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형태로 설치한 추정 제단 역시 이번에 처음 확인된 형식으로 신라의 능묘 의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설명도 따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발굴 조사의 성과로 △북분은 장축 46.7m 단축 42.2m 내외의 타원형으로 장축이 거의 동서향(E-5°-S)이라는 점 △북분의 매장주체부는 지상식으로 금관



총처럼 돌을 쌓기 위한 목조 가구(架構)를 설치했다.

적석부의 남북 길이는 약 10.8m로 추정되는 점 △남분의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으로 이 중으로 목곽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적석부의 규모는 약 7.6×5.5m라는 점 △남분은 북분의 호석(護石)과 봉토의 일부를 견어낸 이후 설치했다는 점 △북분의 제사 토기는 남분과 마찬가지로 호석 바깥 가장자리를 따라 열을 지어 뒀으며 최소 7점 이상인 점 △남분 남쪽 호석 바깥 1.2~2.1m 거리에 5.2×

3.3m 크기의 추정 제단을 설치한 점 등을 꼽았다.

지금까지 마립간 1기 신라 왕족의 매장 의례와 능묘 제사를 밝혀줄 대형분은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까지 총 4기가 발굴됐다.

그 중 1970년대에 조사한 황남대총과 천마총은 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해 보고서를 간행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금관총과 서봉총에 대한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지는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부장품만 수습한 금관총을 2015년 재발굴해 지난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이후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았던 서봉총의 유물편 보고서는 2014년도에 간행했다. 올해 마무리하는 서봉총 재발굴 성과에 대한 유구편 조사보고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간행한다. 조사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윤용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Horea Press Foundation

경찰청

손 끝에서 시작되는 사이버 범죄!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주세요.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울릉도 음식 공개 토론회

울릉도 음식에 대한 재해석이 공개 토론회에서 상품화로 개발된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프랑스 학자를 통해 발표된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울릉도 특산물과 관광공공으로 1, 2일 이틀간 울릉군 일대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공개 토론회는 '세계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구성-자연문화유산으로서 울릉도 지역민의 음식과 그 상품화'라는 주제로 울릉도 음식 시연회와 학술발표 등으로 열렸다.

울릉도 음식 시연회에서 울릉 슬로푸드 회원들은 울릉지역 특산물인 삼팔나리범벅, 삼나물피, 고비무침, 두메부추 김치 등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울릉도 음식문화의 특징을 알렸다.

영남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역음식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한 울릉도 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울릉도 음식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됐다.

'울릉도 도서 환경과 슬로푸드'라는 주제로 울릉도 슬로푸드의 현주소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한 기자

이희진 영덕군수 국비확보 총력전



영덕군이 내년 2국까지 원 신규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 부 세 중청사와 서울청사, 국회를 다니며 발품을 팔고있다.

지난달 31일, 지난 1일 이틀간 윤위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과소 담당과장과 예산담당을 반원으로 정했다.

지역구인 강석호 국회의원의 김동우 비서관과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국비지원담당과 합동으로 방문해 마지막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해나가고 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항블루시티 조성사업과 임산식품용버섯 연구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과를 방문해 필요성 설명과 설득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방문, 해안관광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지원을 건의하고, 당면현안인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사업을 설명했다.

강석호 의원을 방문, 당면현안사업과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최고위원실 국토교통위원들을 다수 만나 전철화 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가지원 예산의 확보는 꾸준한 방문으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발품이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안 반영이 최우선이지만 국회 반영도 중요함으로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포항시 형산강 수은 비상...수상레저타운 운영 유보



2일 포항시 김중식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형산강 퇴적도 오염에 따른 수상레저타운 운영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기준치보다 높은 수은이 검출된 지점에 활성탄을 집중 살포하고 형산강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옥외방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철강공단 연결 지류 구무천 퇴적물서 기준치 1만배 초과

포항시의 역점 사업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사업이 '수은 오염'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포항시는 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상레저타운의 모든 운영 계획을 수질이 개선된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사업은 국비 등 90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상오토바이 체험장과 수상면허조정시험장, 요트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문제가 된 형산강 수은 오염은 철강공단에서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쪽으로 연결된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퇴적물에서 기준치보다 무려 1만배 높은 수은이 검출됐다.

지난달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의뢰한 조사에서 환경부 하천퇴적물 수은오염평가 1등급 기준(0.07mg/kg)보다 1만3000배 높은 916mg/kg이 검출, 17곳에서 4등급 허용기준인(2.14mg/kg)

에 428배나 높게 검출됐다.

김중식 포항시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은 "수상레저타운은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시설인 만큼 안정화제인 활성탄을 구무천 하구에 집중 살포하고 전문기관에 퇴적물 안전방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은이 발견된 주변 수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시민 불안감을 해소한 후 수상레저타운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며 "당분간 수상레저타운 주변에서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호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형산강 수은 오염은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형산강 재첩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조사에서 수은이 기준치(0.5mg/kg) 보다 높은 0.7mg이 검출됐다.

포항시 등이 오염원을 찾기 위해 실시한 추가 조사에서 구무천 퇴적물 등에서는 수은이 검출됐지만, 형산강 수질 검사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동진 기자

최양식, 공감·협업의 현장행정이 부흥 경주 만든다

8월 찾아가는 현장 읍·면·동장회의 가져

최양식 경주시장의 현장 행정이 강도높다. 시는 시정현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추후 예견되는 유사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정례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읍·면·동장회의를 시청 현안과 역점사업 현장에서 개최하며 공감과 협업의 현장행정으로 바꿨다.

2일 서면사무소에서 최양식 경주시장, 김종권 부시장과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찾아가는 현장 읍·면·동장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최 시장은 이번달 중 역점시책으로 폭염과 가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피서철 관광객 맞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대회와 축구대회와 주요 행사 홍보,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읍면동 실천운동에 대한 협조를 주문했다.

이날 역점시책 전달에 이어 읍·면·동별 추진

중인 가뭄과 폭염 피해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를 갖고 피해상황과 각종 대비 실태를 재점검하고 항구적이고 중장기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최 시장은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되고, 그때마다 내놓는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최악의 가뭄이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정확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가뭄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회의 후 이어진 현장견학은 봉덕지 용수고갈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덕지 가뭄 현장과 종합정수공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서면 천촌리 봉덕지들은 지난해 주 용수원인 봉덕지수지 제방보강공사와 준설 이후 강우량 부족으로 모내기 시기부터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 200톤 규모의 암반관정 개발과 심곡지 간선수로에 설치된 임시양수장에서 다단양수를 실시하고, 아울러 최근 일주일 사이 내린 단비로 벼 수잉이 시급한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히

진행중이다.

봉덕지 용수공급 현장과 봉덕지 준설 현장을 둘러본 최 시장과 읍면동장들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식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최 시장은 "화장시설이라는 특수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여러분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고인을 모실 수 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과 고객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배려와 최고의 서비스로 품격있는 장사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경주하늘마루는 2012년 개원 이래 공해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을 결합한 ONE-STOP 시스템으로 장례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꾸준히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화장률은 2013년 68.4%에서 지난해 73.6%로 매년 2%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화장건수도 2013년 2266건에서 지난해 2675건 크게 증가했다.

윤용찬 기자

울진군, 무료 국가 암 검진 적극 참여 홍보



울진군은 암을 조기에 발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에 나섰다.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군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막고,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은 낮추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울진보건소는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 다각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알리기 위해 힘쓰며 많은 지역민들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암 종별 검진대상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 연 2회이다.

대상암은 매년 만 50세 이상으로 나이에 따라 5가지 암종에 대해 검진 받을 수 있다.

단, 국가 암 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비지원 혜택이 제한된다.

대상암의 경우 1차 검사(분변검사)를 한 경우만 의료비지원이 가능하나 본인부담으로 대장내시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꼭 분변검사를 병행해야 한다.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암환자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김형삼 기자

행정-정치 힘모아 포항 발전 힘 보탠다

포항시, 경북도 2회 추경 앞서 경북도의원 초청 간담회 가져

행정과 정치와 손잡고 포항시 예산 따오기에 힘을 쏟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간부공무원 10여명과 장두옥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출신 도의원 8명 등 20여명과 자리를 하고 지역현안사업 논의와 제2회 경북도 추경예산 편성 대비 대비 확보를 위한 '도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떠오른 '형산강, 구무천 오염퇴적물 정화대책'과 관련해 60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 경북도, 포항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 퇴적물 준설 및 토양정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줄 것과 '형산강·구무천 오염원 분포 정밀조사 용역' 추진 시 도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조기에 포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포항형 일자리 5100플랜'과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 주요 발굴과제와 관련해,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포항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 생태태양 복원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우리 지역이 선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민간항공사에 대한 '포항공항 활성화 손실지원금' 건의를 포함한 20여



건의 주요 도비지원 건의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신규 사업의 발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과 지역 도의원과도 협동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비 확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장두옥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1회 추경에서도 최대 규모의 도비를 확보한 만큼 2회 추경에서도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업이 경북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 도의원들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최대 규모의 도비를 확보해 순조로운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강동진 기자

덕곡천 황산 유출 안정 찾아

영덕군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영덕군 덕곡천 황산 유출이전차 안정을 찾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달 30일 포항-삼척간 철도공사장 황산 유출사고로 오염된 덕곡천의 수질이 영덕군의 신속한 조치로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덕곡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철도건설 공사현장에서 황산이 유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 300여마리가 폐사했다.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6공구 공사장에 있던 탱크에서 보관 중인 황산 10000가 유출됐다.

사고 당시 시공사인 D업체는 포항-삼척철도 건설을 위해 터널을 뚫고 있었다.

영덕군은 방제책을 설치하고 소석회를 살포했다.

폐사된 물고기와 유출된 황산을 전부 수거하도록 D업체에 지시했다.

영덕군은 D업체 관계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산 유출 사고로 하천수가 정체되는 일부 구간 pH는 2.5까지 악화됐다.

하지만 경북도와 영덕군의 황산 유출 차단과 하천 중화작용으로 정오 무렵 pH 5.81, 6.9(15:30), 6.97(18:30), 7.20(31일 07:20)로 빠르게 회복됐다.

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pH는 7.67로 완전히 정상수준을 되찾았다.

영덕군은 하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질을 계속하는데 앞장선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섭외해 하천 내 3개 지점(화수리, 지적공사암, 오십천 합류점)의 수질을 2회에 걸쳐 15개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군 관계자는 "덕곡천 수질을 철저히 확인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건 기자

원전사업자지원 사업 공모

울진 한울원전

한국수력원자력본부(원자력본부)는 2018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공모 지원사업은 △교육장학 지원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환경 개선사업 △지역복지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등으로 총 99억 3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수용성 증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한울원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울원전 홍보실 대강당에서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한울원자력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삼 기자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경산 양지요양병원
전자동 혈압계 기증



경산에 있는 양지요양병원이 성암생활체육관에 전자동혈압계를 기증했다.

기증된 혈압계는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시청과 성암생활체육관 휴게실에 설치, 방문민원인과 운동은 시민 누구든 손쉽게 혈압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지요양병원 양석승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상훈 기자

영화 정글북 상영
성주문화예술회관

방학특선 영화 '정글북'이 오는 19일 성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상영된다.

영화 상영은 방학을 맞이한 지역 어린이들의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준비된 차례표다.

영화는 전연령이 관람 가능하고 오후 2시에 상영, 관람료는 무료다. 박노균 기자

토종식물 보호 앞장
성주읍, 가시박 제거



성주읍은 2일 삼산리 이천변 일대에서 가시박 제거작업을 했다. 가시박은 다른 물체를 갖고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주로 하천을 따라 확산돼 주변의 식물을 말라죽이고, 날카로운 가시로 다른 식물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외래종이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가시박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노균 기자

살인진드기 불안 넘어 공포로

올들어 경북서만 3명 사망
치사율 30% 농민들 덜덜덜
고령군,진드기 감염병예방
교육 홍보 강화... 열 올려

살인진드기가 농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있다. 예방백신조차 없는데다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법정 감염병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흡혈성이 더 강해지는 작은 소참진드기가 옮기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병과 사망률이 높다.

■공포의 살인진드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SFTS는 올 들어 전국에서 75명이 발병해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4명이 발병해 5명이 숨졌다.

경북·제주·강원·경기에서 각 3명씩, 전북과 경남에서 각 1명씩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165명의 확진환자 가운데 19명이 숨졌다.

경북은 25명 중 6명이 순제 전국 최고 사망률을 보여 더이상 진드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발열로 포항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A씨(75·영덕군)는 고열이 가라앉지 않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15일 숨졌다.

숨진 다음 날 병원은 A씨에게 SFTS 확진 판정을 내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속수무책이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고령군 홍보 앞장

고령군 보건소는 진드기매개질원(SFTS,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전 지역 순회교육과 함께 주1회 마을 방송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진드기 기피제 1만9000개를 전 가구에 배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검은 딱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집중노출 추정 시기는 (8월중순~10월초)에 진드기 유충에 물려 잠복기가(1~3주) 지난 후 9월 초~10월 말에 집중 발생한다

고령군은 예방약이 없어 진드기에 안 물리는 게 최선이라 반드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외활동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눈지 않기 △땀자리를 피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웅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손정석 기자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석척읍 반계리 송정자연휴양림에서 지역주민과 피서객을 대상으로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휴양림에서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3000권의 도서뿐만 아니라 타투, 풍선아트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제공한다.

김영근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 회장은 "송정자연휴양림을 찾은 피서객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책과의 만남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영천 포도 대한민국 넘어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

대도시 판촉행사 영천과일 우수성 홍보
지역 농산물 대형마트 홍보·직판행사

영천포도가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영천은 별의 도시 포도로 유명한 고을이다. 포도재배 적지로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곳의 포도는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해 전국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영천 포도의 명성이 멀리 해외까지 전해져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명실상부 우리 농산물의 한류 바람에 기여를 톡톡히 하고 있다.

포도는 껍질부터 씨까지 영양으로 뽐낼 만한 과일이다. 여름철 지친 체력을 보강하는데 제격이다. 때문에 영천시는 본격적인 과일 출하기를 맞아 지역농산물 판로확보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도시 판촉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1~1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전점에서 포도데이(8월 8일) 행사를 한다.

영천포도(캠벨얼리, 거봉)와 와인·쇠고기 등 축산물을 연계한 행사에는 포도 아가씨들의 포도 및 와인 시식행사로 포도판매뿐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3일에는 금호농협과 함께 탐 마트 포항 우현점 등 전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아삭아삭 고당도의 지역 대표 과일 복숭아를 선보인다.

복숭아 판매를 촉진하는 등 수급조절을 위한 복숭아 판촉행사도 결들인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롯데마트 전점에서 머루포도 홍보·판매를 위한 행사를 추진



한다.

영천시는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로 지역 과일의 우수성 홍보에 힘쓰고, 다각적인 판로 확대 등 안정된 농가 소득에 행정력을 모은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 과일 판매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나은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경산지역 교감, 연수회에 간 까닭은?

학생들의 '꿈과 끼' 향상 위해

경산교육지원청은 관내 중등 교감 20명을 대상으로 2학기에 시행될 자유학기제를 대비해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가졌다.

자유학기 운영 우수학교를 견학,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을 토론회 형식으로 심도 있게 협의, 진로체험처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교감들의 이번 연수회는 효율적인 자유학기 운영 방안 모색으로 학생활동중심 수업이 뿌리를 내리고 진로 지도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이금옥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자유학기제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권상훈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다시 한번 大~한민국’
을지연습 안보강연회



군위군의 ‘2017 을지연습 안보강연회’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강연은 ‘다시 한번 大-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공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으로 90분간 강의했다.

강의를 한 김나영 강사는 탈북민으로 현재 한국강사협회 통일안보분과 위원장 및 통일준비병강사협회장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채소이식기 이용기술 농작업 대혁신 꾀한다

상주시, 채소이식기 임대로
밭작물 노동력 획기적절감

논농사 기계화율 98%
밭농업 기계화율 60%



채소이식기 이용기술 교육이 새로운 농촌기술로 떠오른다.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채소이식기 이용기술 교육의 관심도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에 달하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60% 미만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과 정식 기계화율은 5%, 수확은 13%이다.

농가들은 부족한 인력에 고된 수작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민들은 재배면적을 넓히지 못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깊게 패인 주름살만 늘어났다.

때문에 상주농업기술센터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해 줄 방향을 찾는데 고심했다.

그동안 상주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의 이식작업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채소이식기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자동 동력채소이식기를 도입,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교육 등 매 교육시마다 4000여명 이상의 농업인들에게 기증 소개와 홍보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농작업에 활용, 큰 효과를 본 농업인들의 사례에서 채소이식기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완전 자동 채소이식기 임대시 이용기술 교육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

다수 농업인들이 이용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작동방법이 자동에 비해 다소 쉽게 느껴지는 반자동 채소이식기를 추가로 확보 병행 임대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채소이식기 이용기술을 배운 김희종(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씨는 “2000여평에 붉은 양배추(적제)를 이식, 인건비를 1/3이하로 줄일 수 있

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파수집기를 이용, 지난해 인건비가 160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에는 400만원까지 낮출 수 있어서 생산비 절감에 아주 큰 효과를 보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 상반기에 7회에 걸쳐 123명을 교육했다.

이 결과 29농가에서 채소이식기를 사용, 콩·옥수수·배추·참깨·뜰개·대마 등 작목을 17만 6600㎡의 면적에 이식,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건비 절감에 한몫했다.

육심고 상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 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기계화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논농사에 이양기가 도입돼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이 가능했던 것처럼, 밭농사에서 채소이식기 사용이 광범위화, 일반화 돼 또 한번의 농작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채소이식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ja.sangju.go.kr/>) 교육신청 게시판을 이용, 교육 신청을 하거나, 전화(537-7895)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은진 기자

‘공룡이 살아있다!’
여름방학특강 열어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최근 여름방학특강 ‘공룡이 살아있다’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초·중·고생과 일반인을 등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백두성 전시교육팀장이 공룡탐사를 떠났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수억만년전 살았던 공룡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학생들이 직접 공룡이빨을 만져 볼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큰 흥미와 관심을 끌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공룡에 대해 상상하면서 과학적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유익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몰지각한 시민 행동 구미 이미지 실추

정자 부수고 가드레일 파손
쓰레기 아무데나 내 팽겨쳐
구미시, 생활민원 특별점검
행락지 등 모두 21건 처리



시민의식이 갈수록 실종되고 있다.

쓰레기는 쌓여 악취를 풍기고, 시민들이 쉬는 쉼터는 부서져 쉼 곳조차 없게 만들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가드레일까지 파손, 방치하고 있다.

구미의 좋은 이미지가 시민들의 의식부재로 망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구미시의 생활민원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구미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구미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행락지·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지난달 25일-지난 1일까지 5일간 생활민원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은 많은 관광객 수요가 예상되는 △금오산도립공원 △지난 5월 개장 임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는 구미코코랜드△낙동강 상류포츠 체험센터 △육성자연휴양림 △낙동강 체육공원 △구미산악레포츠공원 등 구미를 대표하는 관광지 및 행락지의 시설물 등을 총망라했다.

무엇보다 구미역,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선산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병행 점검했다.

각종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별점검 결과 곳곳에 부서졌다.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점검에서 구미시는 안전사고 우려사항 및 환경상태가 미흡한 곳 등 불편사항은 관련 부서에 신속 통보하는 등 모두 21건을 처리했다.

박수원 새마을과장은 “휴가철 기간에도 행락지 등 다중집합장소를 주기적으로 순찰, 사소한 불편민원사항에 힘써 다시 찾는 관광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치어야 무럭무럭 자라나렴”

의성군 내수면 어자원
조성 치어 2만미 방류

의성군의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행사가 지난 1일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사곡저수지에서 열렸다.

치어방류는 경북도 토속어류산업센터와 의성군이 손잡고 외래어종의 증식을 줄이고, 토속어종 서식환경 보호 및 어족자원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경북도 토속어류

산업센터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시군 상생 발전에 따라 경북도 토속어류산업센터에서 육성한 치어(붕어, 잉어) 2만미를 방류했다. 의성군은 이날 관내 육산면 금봉지, 단밀면 용암지, 안계면 개천지에 6만미를 방류,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있는 우량종묘를 지속적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풀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민의 소득 향상, 주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행사로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어업질서 확립에 한몫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농촌여성들 뭉쳐 모범도시 만들어요

2017 한국생활개선 문경시연합회
농촌여성 결속력·역량강화 한뫼

한국생활개선문경연합회 한마음 연찬회가 2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참석, 농촌여성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역량강화에 뜻모았다.

이날 연찬회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식전공연으로 멋진 통기타 연주와 신명나

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장내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문경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회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범시민 선진질서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실천 결의를 다졌다.

오후에는 회원들의 단합심을 기르기 위한 체육경기와 읍면동 별 퍼포먼스 경진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그동안 탐 흘려준 무대를 멋지게 장식하는 시간이 됐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구입문의 |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대표전화 | 054)537-7504~7506

상주시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부 상주

청정지역 상주시의 농산물 중
名品에만 그 이름을 허락합니다.

상주蘋果

상주딸기

상주한우

상주포도

상주배

상주사과

상주복숭아

상주오이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봉화군, 휴가철 가스 조심 조심

여름철 야외 가스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와 봉화군 LPG판매협회 회원 등 20명은 2일 제19회 봉화 은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가철 가스 안전사용을 홍보했다.

계몽운동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 LPG가스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사전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LPG 가스시설의 주기적 점검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야외활동 시 안전한 일회용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중점 알렸다.

은어축제장 내 가스를 사용하는 상인 및 캠핑을 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했다.

봉화군은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와 업무협약에서 매년 서민가스시설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등 다양한 가스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매년 가스 안전점검 및 홍보 행사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 지역사회 안전 길잡이로 앞장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규제개혁 공직자 역할 교육



영양군의 규제개혁 직원교육이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에는 소속 직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규제개혁의 중요성 확산 및 적극행정을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김복영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청, 영양군민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 소백산역의 화려한 변신

기차길 옆 캠핑장 영주 새 관광명소

영주 소백산역(희방사역) 캠핑장이 새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에 따라 풍기읍 수철리 소백산역 터에 조성한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을 지난달 28일 개장했다.

앞서 시는 풍기읍 수철리에 위치한 소백산역 부근에 카라반 7동 및 족욕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 조성을 완료했다.

캠핑장이 조성된 수철리는 소백산 자락의 우수한 자연풍광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해 활용할

마를 내 관광시설이 부족했다.

소백산역은 산업화 시기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통로였다.

하지만 중앙선 복선화로 폐역이 예정돼 향후 활용방안이 문제가 됐다.

영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백산역 일대를 고즈넉한 산골역사의 정취를 간직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식품부 지역 균형개발 사업으로 2016년부터 캠핑장 조성 공사를 시작 개장했다.

소백산역 캠핑장은 위탁사업자인 마을기업 무쇠달협동조합에서 3년간 운영한다.

캠핑장 운영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광객 수 증대를 통해 농특

산품 판매 등으로 마을의 경제적 소득이 따라서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소백산역 캠핑장은 인근에 죽령옛길, 희방폭포, 풍기온천리조트, 인삼박물관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향후 죽령옛길걷기 체험행사, 마을 특산품인 사과따기 체험행사 등 차례표도 운영,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주시는 "소백산역 캠핑장이 수철리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영주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청송에 다슬기 주우러 가자!

제8회 청송 안덕 다슬기 축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홍보... 행사 마련

제8회 청송 안덕 다슬기 축제가 오는 5, 6일 이틀간 안덕면에서 열린다.

청송군의 청정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를 홍보하기 위한 '굽이 굽이 끝부리 마을'이라는 부제로 마운다.

행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하천으로 소문난 길안천을 따라 방호정감 입목류천, 신성리 공룡발자국, 백석탄 포트홀, 만안자암 단애 등 지질명소가 이어지는 안덕면 지소리 새마을고 일대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다슬기 무침, 다슬기 국, 물고기 튀김 등의 음식과 함께 다슬기잡기, 사발무지, 민물고기 요리 및 시식, 맨손 메기 및 물고기잡기 체험 계획표와 풍물놀이, 초청가수, 남성 중창단, 색소폰 공

연 등이 예정돼 있어 다채로운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주관한 청송백석탄내수면어업계 김정학 대표는 "내수면어업계 주민들이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도 탐방하고 다슬기 축제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영주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 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개선교육

한때 공직사회에서는 '잘못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 '이득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가 괜히 특혜의 오해나 받지'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러한 소극적 업무처리와 보신적 태도를 척결하면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영주시가 나섰다.

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황해식 과장을 초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를 교육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면

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꾀한다.

황해식 강사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수범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전 직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가 발생한 실수는 적극 업무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다.

전상기 기자

여름철 안전사고 미리 방지하자!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17일까지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다.

여름철에 작업하는 풀베기 등의 산림사업은 벌, 진드기, 뱀 등 독충류에 신체부위가 노출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도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초빙해 각 국립유관관리소에서 영림단, 숲가꾸기 패트롤, 양묘사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요령, 안전사례 교육, 독충류 예방법, 응급처리 요령 등 산림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김용구 기자

어르신들 추억의 영화 보러 오세요

예천군 노인복지관 추억의 영화관 운영

예천군 노인복지관은 오는 10일까지 총4회(화·목 10시)에 걸쳐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추억의 영화관'을 운영한다.

'추억의 영화관'은 계획표 휴가기간인데도 더위를 피해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다.

1일 10시에는 시골외할머니와 도시 손자 간 세대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집으로'를 상영했다.

3일에는 지적장애인 마라톤 선수 엄기봉을 다룬 영화 '맨발의 기봉이', 8일에는 B사감의 권위적인 모습과 사랑에 대한 모순적인 심리를 그린 영화 'b사감의 러브레터', 10일에는 노인 부부와 그들이 키우는 나이 먹은 일소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상영한다.

예천군은 "평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추억의 영화관 상영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주현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합동 아웃리치'

봉화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합동 아웃리치, 즉 방문 지원이다. 원조가 필요하지만 자발적 신청이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1일 봉화읍 체육공원 은어축제장에서 '2017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합동 아웃리치'를 펼쳤다.

합동 아웃리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 관심과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웃리치는 봉화 은어축제장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손으로 쓴 그림문자) 부채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활동을 해 호응을 얻었다.

박영덕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센터와 봉화경찰서, 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명칭인 '꿈드림'은 꿈과 드림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꿈드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54)674-131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www.bonghw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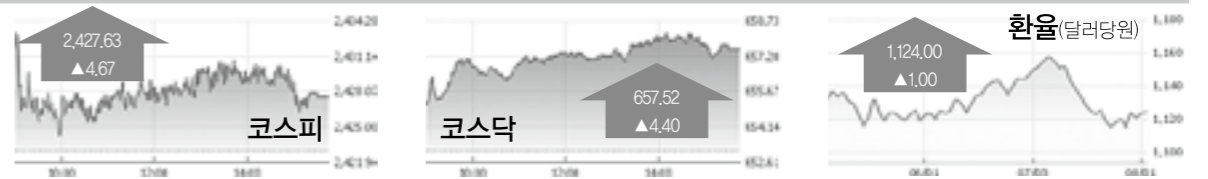
행복을 위한 산림휴양도시 봉화

세계적 체험, 관광, 그리고 휴식과 여유가 있는 곳.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

청정 봉화의 맑은 자연 속에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대고의 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봉화로 오세요!

봉화군



내년부터 초고소득자 9만3000명 소득세 더 낸다

‘3억~5억’ 4만명 38→40%
‘5억 초과’ 5.3만명 40→42%
추미애 증세안 현실화...
OECD 평균 소득세율 엇비슷

정부 “소득세 1.1조 더 걷혀”...
근소세 면제자 非축소 논란 남겨

내년부터 초(超)고소득자 9만3000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최소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린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5억원 초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이 신설돼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차상위 구간도 신설해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 38%를 40%로 2%포인트 높인다.

이는 이른바 ‘추미애 증세안’을 정부가 그대로 채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청와대가 받으면서 공식화됐다.

당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데다 청와대까지 동의하면서 큰 잡음이 생기지는 않았고, 오히려 증세 논의의 물꼬를 터준 발언으로 환영을 받았다. 여기에 추 대표는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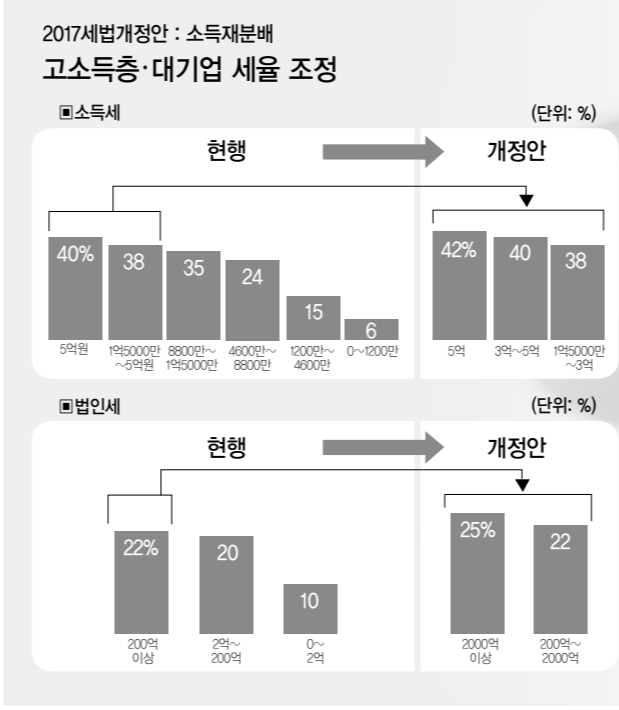
정부로서 면이 서지 않게 됐지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새 정부 공약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국세 가운데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이 소득세다. 지난해 전체 세수(233조3291억원)의 30.1%(70조1193억원)가 소득세에서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소득세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한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다. 한국보다 5%포인트 높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스위스 등 국제 비중이 낮은 5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소득세율(41.9%)과 엇비슷해진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조세 제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며 “소득 재분배와 조세 정의를 위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그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입 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김부총리

다만 그는 “현재 경제 여건과 과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할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늘게 된 부자는 9만 3000명(5억원 초과 5만3000명, 3억~5억원 4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월급쟁이(근로소득자) 상위 0.1%인 2만명 과 자영업자(종합소득자) 상위 0.8%인 4만 4000명이 여기에 속한다. 양도소득자는 상위

2.7%(2만9000명)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부담액은 각종 공제를 감안해 최소 100만원 늘게 된다. 단순 계산시 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율 2%포인트를 인상할 때 추가로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 2조60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소득세 체계에서 근로소득세 면제자 규모

를 건드리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015년 기준 월급쟁이의 46%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오늘 발표하는 것 외에 (면제자 비율 축소를 비롯한) 조세 개편은 조세특위(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김동연 “저성장·양극화 극복한다 ‘세율 조정’...일자리·소득 재분배 역점”

세계발전심의회위원회 전체회의 열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계개발연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세계발전심의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늘

리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고 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포스코, 포스코패밀리 기술콘퍼런스 개최

2017 포스코패밀리 기술콘퍼런스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포스텍과 RIST에서 열린다. 올해 29회째를 맞는 콘퍼런스는 포스코를 비롯해 그룹사와 고객사, 공급사, 대학 및 연

구기관 등이 함께 참석하는 기술인 최대 축제다. 특히 포스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강 및 신사업 분야 기술개발 동향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개최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개회사와 포스코 패밀리 기술상 시상식에 이어 빌 러(Bill Ruh) GE 수석부회장이 기조강

연을 할 예정이다.

빌 러 수석부회장은 GE Digital의 CEO이자 GE의 CDO(Chief Digital Officer)로서 세계적인 GE의 Digitalization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스마트 대응을 위한 Insight 및 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올해에는 ‘강건재’ 세션과 ‘E&C’ 세션을 추가 신설했다. 강동진 기자

대구·경북 상장기업 주가 총액 59조 집계

7월 시가총액...전월 비 4조190억원 증가

대구·경북 상장기업의 지난달 시가총액이 전월대비 4조190억원이 증가한 59조5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등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 상장사 주가 총액의 49%를 차지하는 포스코를 제외할 경우 시총 증가는 0.31%인 956억원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장기업의 지난달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상장기업의 시총 대비 3.35%로, 전월대비 0.21%포인트 증가했다.

지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8곳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47조4580억원으로 전월보다 9.65% 증가했다.

POSCO가 3조 9234억원 증가한데 이어 현

대로보티스 6502억원, 삼익THK 840억원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9.65% 증가한 47조4580억원을 나타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68곳의 7월 시총은 포스코ICT 1520억원, SK머티리얼즈 1413억원, 토탈 1262억원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1.30%(1590억원) 감소한 12조920억원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월대비 각각 16.59%, 15.01% 감소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은 5억 4000주로 지난 6월 6억 주 대비 16.59%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거래량은 2억 주로 전월대비 20.08%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종목은 3억 주로 전월대비 14.53% 감소했다.

주가 상승률 상위 5개 종목은 삼익THK, POSCO, 현대로보틱스, CS홀딩스, 조선선재이고, 주가 하락률 상위 5개 종목은 포스코강관, 대호에이엘, 세하, 세원정공, 코오롱플라스틱 등으로 집계됐다.

이상하 기자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
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대성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막의 태양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깨끗한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메마른 황무지에서 감자가 자라고 호박이 커갑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식량(Food), 에너지(Energy), 물(Water)
대성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일어가겠습니다.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일 4일은 가스안전 점검의 날

대성그룹이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친환경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2015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2개 부문에 걸쳐 국제 그린 애플 환경 어워즈(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일대 건축·토목분야, 산업계관점 평가 최우수·우수 획득

건축(시공)분야와 토목분야 교육과정 우수성 입증 받아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와 건설공학부가 2016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건축공학과와 건설공학부는 교육부 지원 대학특성화사업(CK-1)인 LIPE사업단(Life-cycle Infrastructure Performance Enhancement by ICT Convergence-HRD)에 참여하며 해당 성과를 거둬 주목 받고 있다.

2일 경일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6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기계와 자동차, 건축(시공), 토목, 조선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경일대는 5개 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해 참여했으나, 건축(시공)분야 최우수상, 토목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2015년 기업계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성과' 등 3개 영역의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분야 관련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기업체 부서장 대상의 직원 직무역량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도 활용됐다.

평가 반영비율은 교육과정 설계 30%, 교육과정 운영 50%, 교육과정 성과 20%이다.

30개 기업의 임직원과 대학교육 전문가 5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 평가에는 2991개 기업이 협조했다.

전국 67개 대학, 166개 학과가 참여했고, 건축(시공)분야의 경우 경희대, 동아대 등 47개

대학, 토목분야의 경우 한양대, 건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일대 건축(시공)분야는 3개 영역(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 운영 및 성과) 전반에 걸쳐 최우수 등급(A++)을 받았으며 토목분야의 경우 전 영역에서 우수 등급(A+)을 받았다.

산업계 관점에서 경일대 건축(시공)분야와 토목분야의 교육과정 우수성을 입증받은 것이다.

경일대 건축공학과와 건설공학부가 참여하

고 있는 LIPE사업단은 대구·경북·강원권 유일의 건설부서 특성화 사업단이다.

첨단 ICT융합기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건설산업 변화와 지역 건설기업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지역 건설기업과 학생 수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건설분야의 특성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김두연 LIPE사업단장(경일대 건설공학부 교수)은 "이 수상은 특성화 사업의 운영을 통해 산업계 수요를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

램에 반영한 노력의 성과다. 앞으로도 건설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첨단 ICT기반의 건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2007년 5월 경제교육부총리, 경제 5단체장, 대교협, 전국 국·공·사립 총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추진을 합의했고, 2008년 대통령 업무 보고와 동시에 대학평가가 시작했다. 김진희 기자

대구교육청, 초등학교사 전보제도 대폭 개선

다자녀 교사 학교선택권 부여 초등학교사 구역만기제 대폭 개선

내년부터 다자녀 교사에게는 우선 전보 횡수 제한이 없어지고, 주거지에 가까운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사 전보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학교 입학 전인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에게 2회에 한해 적용되던 우선전보 횡수 제한을 없애 횡수에 관계없이 우선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보 시 주거지와 가까

운 학교를 교사가 직접 선택하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먼 거리를 자녀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집에 혼자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전보 시에 적용해오던 '구역 만기제'도 대폭 개선한다.

'구역 만기제'는 우수 교사의 교류 확대를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만기(8년)를 적용하다보니 동일 구역에서 8년을 근무한 교사는 거주지를 벗어난 학교로 전보돼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의 '구역 만기제' 중심의 교사 전보제도를 선호학교와 비선

호학교로 구분해 선호학교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는 학교 중심의 전보제도로 전환해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교원인사관리위원회회의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해 다양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전보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 사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초등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경북대 졸업생 박철상씨, 모교에 톡큰 기탁 화제

5년간 13억5000만원 기탁



이 갈 수 있도록 수혜인원을 당초 30명에서 90명으로 늘려 2년만에 기금을 소진했다.

박씨는 이날 경북대학교와 새로운 약정을 맺어 향후에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그가 지금까지 복현장학금, 사립장학금(사법대) 등으로 경북대생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모두 6억7400만원에 이른다.

박씨는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저의 고마움과 존경의 표현"이라며 장학금 증액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도 평생, 후배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현장학금에는 1학기당 45명씩, 1년에 9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새로운 약정을 맺으면서 장학생 수는 기존과 동일한 90명으로 유지하되, 1인당 장학금을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오는 가을에 있을 6회 복현장학생 선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철상씨는 자산운용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모교인 경북대를 비롯해 학교 및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박씨가 현재까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24억여원에 달한다. 김진희 기자

폴리텍대 달성캠퍼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 개발회의 개최

체계적인 훈련과정 통해 양질의 직무 교육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는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단 상서고) 제3차 훈련과정 개발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제제도는 독일과 스위스 도제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제도다. 고교단계 일학습 병행제로 고교 2학년부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제도다.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는 NCS기반 양식조리 L2 훈련직무와 관련된 12개 신규 참여기업의 관계자와 개발진 등 30여명과 함께 훈련과정 개발회의를 진행했다. 조여은 기자

주제는 2017년 일학습병행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훈련과정 개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각 개발진들과 참여기업의 관계자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열린 토론을 가졌다.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경산도제 지원센터 김상화센터장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의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학습근로자들이 양질의 직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사 100명, 초등교사 278명 선발

오늘 오전 누리집에 사전 예고

경북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에 2018학년도 중등 교사 100명과 초등교사 278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3일 오전 누리집에 사전 예고된다.

이번 사전 예고는 선발예정과목과 선발예정인원, 임용시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줘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018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은 10월 23-27일 원서접수 후 11월 25일 1차시험

이 치러진다.

과목별 선발 인원은 국어 1, 기계·금융 2, 도덕·윤리 3, 건설 2, 역사 4, 조리 2, 화학 4, 보건 28, 지구과학 2, 전문상담 26, 체육 7, 영양 7, 음악 2, 특수(중등) 1, 한문 3, 정보·컴퓨터 2, 전기·전자·통신4명 등 모두 100명이다.

또 초등교사는 유치원 15명, 초등학교 260명, 특수학교 3명 등 278명이다.

초등교사 임용은 다음달 14일 정식으로 공고되고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5-29일이며 1차 시험은 11월 11일 치러진다. 제2차 시험 및 기타 세부일정은 다음달 14일 시험 계획 공고 때 안내한다. 김용구 기자

대구한의대, 몽골에 홍보단 파견

MONOS그룹과 화장품 공동 개발, 자문화장품 런칭 협의 의료관광 상담 및 설명회 개최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 전개

대구한의대는 의료관광과 K-뷰티 홍보,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홍보단을 구성해 지난 달 21일부터 6일 동안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관건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홍보단은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을 중심으로 수성구 담당 공무원과 대구한의대 국제교류 및 화장품 관계자, 지역 병의원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과 이진훈 수성구청장도 홍보단에 함께 구성원으로 참가했다.

홍보단은 몽골 현지 의료관광 조사 및 병의원,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몽골 MONOS

그룹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MONOS그룹과 대구한의대간 화장품 공동 개발과 MONOS 약학대학과 민족대학 등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대구한의대는 MONOS그룹과 화장품 공동 연구개발 및 올해 대학의 자문화장품을 몽골시장에 런칭하기로 협의하는 등 K-뷰티 제품 판로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료관광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여성메디파카병원, 대경영상의학과의원, 세브란스피부과의원 등 홍보단에 참여한 병원들이 각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기술 및 특화된 관광 상품을 소개해 설명회에 참석한 몽골 의료관광 관계자들로 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수성구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몽골 MONOS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변창훈 총장은 몽골 민족대학을 방문해 학생



교류 및 유학생 유치, 부속병원 운영 등을 협의했으며 몽골 의료시설과 전통의료 정책 세미나 등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재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훈 총장은 "몽골은 아직 의료기술과 의료인프라가 다소 낙후돼 있으며, 또한 한류 영향에 편승해 K-뷰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홍보단 방문으로 수성구의 의료관광 상품과 경산시의 K-뷰티 제품이 몽골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수경지역의 의료관광객 유치 및 K-뷰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DGIST, '딥러닝기반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인식 대회' 열어

DGIST는 오는 4일 오전 국제회의장에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겨루는 '딥러닝기반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인식 경진대회'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및 딥러닝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업아이템 발굴과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여은 기자

대회에는 DGIST를 포함해 KAIST, 포스텍, 경북대, 중앙대, 건국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알고리즘 실력을 겨룬다.

DGIST 황윤경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딥러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되고 있지만, 선뜻 공부를 시작하거나 적용을 어려워하는 국내 개발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기술에 대한 역량을 한층 더 키우고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문화

대구광역시 2017년 8월 3일 목요일 12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주위가 산만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수가 있다. 확실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노력함이 좋겠다. 자녀 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대화로 풀어나라. 2, 8, 9월생 북쪽 사람 조심함이 좋을 듯.

이성문제가 크나큰 화근으로 발전할 염려 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배필은 따로 있다. 나이(지)가 많은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불륜관계이다. 3, 5, 7월생 조심할 것. 여성은 특히 연하의 사람을 경계하라.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최선을 다할 때. 현재는 힘쓰지만 조만간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7. 자성씨는 애정에 길증이 있겠으나 곧 미운이 변해 사랑으로 승화할 수. 김정색이 길 동, 서쪽이 길하다.

의욕이 상실돼 중도에 포기할 염려 있다. 애정은 청경보다는 대화로 감싸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냉정함을 풀어나라. 변종이나 새로운 것을 구상해도 힘이 못 미쳐 생각만으로 끝나기 쉽다. 11월생 자기 자신을 억제할 것.

소자비이라도 과감히 투자하면 생각보다 득이 크다. 진실성과 근면함으로 찬사로 받겠다.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루는 수. 애정은 남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다. 1, 3, 7월생은 자신감 유무가 승리를 좌우한다.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 그러나 미련 버리고 희망을 갖고 전진함이 좋다. 가정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날이다. 건 축업 종사자는 뒷일을 생각하라. 7, 9, 11월생은 4, 6, 8월생들 특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답답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겠다. 자신이 저지는 잘못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함이 좋겠다. 자녀에게 행운 소식 7, 8, 9월생 노란색 상하.

길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마음은 이기적인 당신이다. 그런 성격을 버려야만 자신도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 5, 9월생은 스스로 만든 복잡한 애정관계를 청산해야 사업에도 대성할 수 있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

재주도 많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라. 인생은 곡예사의 줄타기다.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가 대비되고 회비가 엇갈리는 게 일이다. 중년 말고 전진하라. 5, 7월생 조심.

항상 분주한 일과에 피로가 겹치니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어려운 일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잡을 수가 없어 답답. 동업자와 연정 조심할 것. 긍정적으로 추진.

돈도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배운 것을 잊지 마라. 현재 처지에서는 좌절만이 답이라고 악해지지도 말라. 결단을 내려 계획을 세우고 인내로 이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 적색이 길 타의 일에는 신경 꼭 두자.

현명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무난히 넘긴다. 모든 일이 화합을 이루니 메사가 순조롭다. 이성적으로는 지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고 해서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 좀 시간을 두고서 결정해야 된다. 남쪽은 불길하니 가지 마라.

책 사고 공연 보면 연 100만원 소득공제...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조항이 신설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5호에서 규정한 간행물이고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이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도서비·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반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교보문고 '언어의 온도' eBook 한 달간 무료

교보문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eBook 기획전을 진행한다

교보문고는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기주의의 '언어의 온도' eBook 콘텐츠를 이번달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한다. 교보eBook 무료코너에서 본문 전체가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2주간 대역 가능하다.

'언어의 온도'에 있는 좋은 문장을 뷰어 내 '공유하기'를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면 추천을 통해 저자 낭독회에 초대된다. 낭독회는 31일 서울 광화문 워커힐 아크홀에서 열린다.

또 마블코믹스의 대표 만화시리즈인 '스파이더맨의 모든 것' 세트 18종, '시빌워' 세트 4종을 포함해 총 30종의 eBook을 정가 대비 최대 88% 할인된 가격으로 7일 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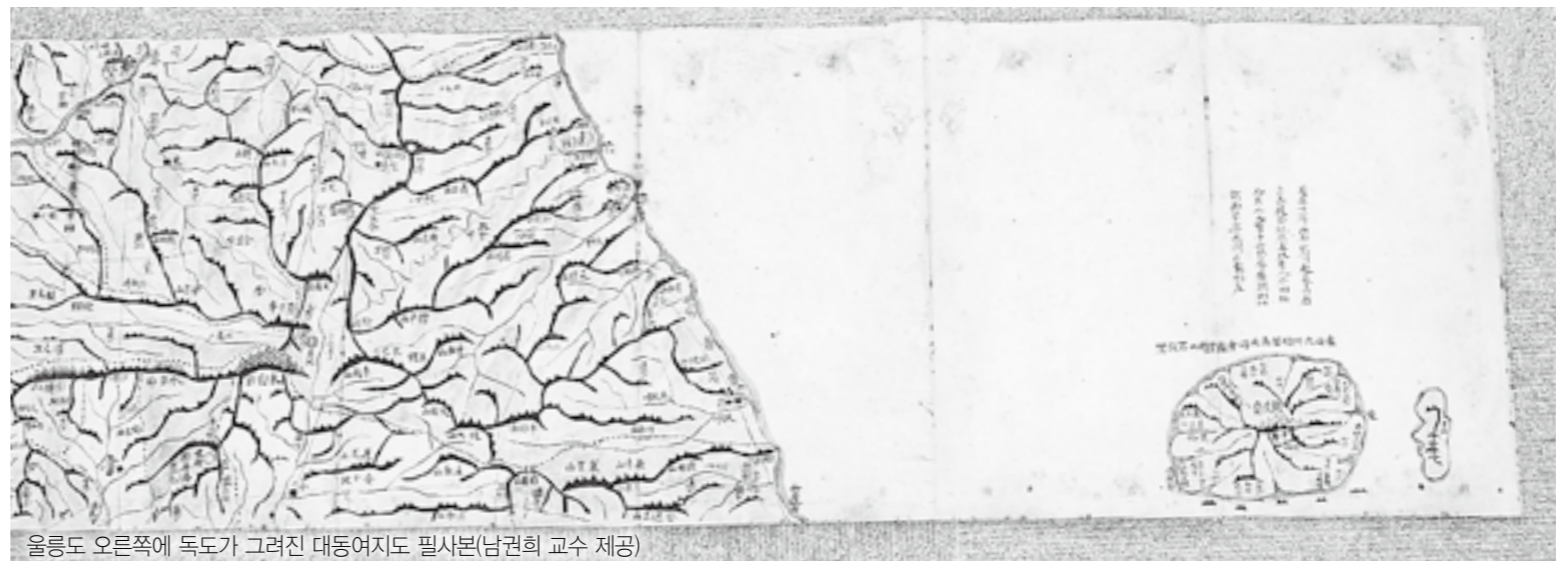
도서마다 제공되는 50% 추가 할인쿠폰을 받으면 500원~12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읽으면 좋은 책들을 선구매 해 50% 대역 추가 할인 쿠폰과 교보e캐시 등도 준다.

뉴스

독도 그려진 대동여지도 필사본 일본서 또 발견

일본 개인 소장가 소장품 조사·연구 율릉도 오른쪽 '우산도(독도)' 표기

남권희 경북대 교수 "고산자 김정호 목판본서 빠뜨린 독도... 보완·표시된 것으로 보여"...국내외 조사돼 의미



율릉도 오른쪽에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 필사본(남권희 교수 제공)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 필사본이 일본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현재까지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가 확인된 건 일본 국회도서관 한 점,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한 점(등록문화재 제638호)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권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김성수 제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도야마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일본의 한 개인 소장가가 갖고 있던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조사해 22첩 가운데 14첩 1면에서 율릉도 오른쪽에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된 작은 섬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우산도는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남 교수 측은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필사본은 책 내부에 평양부립도서관의 등록번호 5972와 함께 소화 7년(1932년) 8월 30일에 수입했다는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 평양부립도서관에 소장됐던 자료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에 유출됐으나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판본과 형태적인 규묘는 목판본과 같이 22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절첩된 전절은 사각의 책갑(冊匣, 책을 넣어 두거나, 겹으로 싸는 갑)으로 한 질(秩)로 이뤄져 있다.

포갑 겹장 내부 상단에는 붉은 천이 붙어 있는데, 천 안에는 묵서로 '대동여지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적혀 있고, 포갑 옆면

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돼 있다. 책을 덮고 있는 포를 포함한 크기는 세로 30.3cm, 가로 17.8cm이다.

남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지명과 자연경관, 역사기록 등을 기록하고 지역별로 채색함과 더불어, 특히 지리적인 측면에서 독도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는 한국연구원의 소장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 "이 필사본은 조선 후기 고종 때에 앞서 제작된 목판본(신유본)과 갑자본을 바탕으로 필사한 것으로, 지역과 관련된 지리지 내용을 더 보충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0여건의 보완과 추가 기록을 통해 국토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 제작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고산자 김정호가 순조34년인 1834년에 자신이 만든 '청구도'(1834년 혹은 그 이전 추정)를 철종12년인 1861년 증보·수정한 대축적 지도첩이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전 '청구도'와 '동여도' 2개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대동여지도의 내용은 청구도와 비슷하지만, 정간법(井間法)과 백리척의 거리 표시 등을 적용해 실제 지리와 더 가깝게 묘사해 국토정보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목판본은 신유본(1861)과 갑자본(1864)이 있다. 대동여지도 필사본은 목판본을 보강해 만든 지도로, 목판본에서는 율릉도가 제15첩 4면에 인쇄돼 있는데, 율릉도의 오른쪽에 독도는 판각돼 있지 않다.

남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김정호의 목판본에 있는 율릉도를 보다 북쪽으로 상향해 묘사했다"며 "김정호의 목판본에서 빠뜨린 독도를 이 지도에서 율릉도의 오른쪽에 사실적으로 보완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대동여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것으로 국내외에서 두번째로 실제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발견된 대동여지도 채색 필사본 22첩 전체(남권희 교수 제공)

그러면서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만큼 계속적인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동해의 표기와 더불어 이 문제는 지도를 포함한 과거의 기록물 등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지도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안동시, 수상레포츠 도시로 '각광'

안동호·임하호 등 4곳에서 워터슬라이드, 블루점프 등 수상레포츠 가득 펼쳐져...

업체도 가승 4곳, 하회 1곳 등 5곳이 성업 중이다.

하회·병산 코스는 백사장과 여울이 번갈아가며 병산·하회마을을 7km 코스에서 운영된다. 청량산 줄기가 에워싸고 가승협, 외병대, 내병대, 독산, 백력암 등 독특한 절벽이 장관인 가승에서는 급류로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안동호는 배스 손맛을 느끼려는 낚시호수인들의 꾸준한 방문과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배스낚시의 메카로 발돋움했다.

새한국스포츠포스협회(KSA)와 새한국어 낚시협회(LFA)가 주관하는 배스낚시대회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22회 진행된다.

와룡면 산야리에 위치한 안동수상스포츠센터도 조정 뿐 아니라 카누훈련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영남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대구동구청 카누 선수단 등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에도 선착장, 계류장 등을 조성해 수상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낙동강 주변을 명품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수상스포츠 활성화 위한 시설을 보강하는 등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안동시 풍산을 낙동강을 따라 카누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저수지 많은 도시, 경산...시민 휴식처로 인기

아기자기한 놀거리 있는 남매지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반곡지 등



남매공원

경산에는 저수지가 많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26개 포함 크고 작은 저수지 316개가 있다.

2014 농업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1만7427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경북이 5529개로 가장 많고 전남 3216개, 경남 3186개 순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산은 전국 8번째로 저수지가 많은데 이를 단위면적으로 환산하면 영천에 이어 전국 2위다.

저수지의 충분한 수량 덕분에 경산은 전국 생산량 대추 1위, 복숭아 2위, 포도 5위를 자랑하고 있다.

경산을 대표하는 저수지로는 남매지와 반곡지를 들 수 있다.

남매지는 이름의 유래에 얽힌 가난한 남매의 전설 외에도 작은 전설이 몇 개 더 있는데 모두 농경사회 시민들의 애환을 담은 설화들이다. 남매지 전설은 지난해 창작극으로 공연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과거 농경사회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저수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수지 활용을 고민하는 것은 저수지의 기능 변화가 시대적 필연이기 때문이다. 경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무원 시정연구에서 저수지 활용방안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경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남매지는 공원조성 후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저수지가 됐다. 주말과 야간에도 각종 행사와 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음악분수, 바닥분수, 느린 우체통, 소담길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놀이거리로 잘 꾸며져 있어 1시간 산책길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권상훈 기자

‘링크스 코스? 그까이꺼’ 태극낭자, ‘브리티시 오픈’ 우승 정조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번째 메이저 대회인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이 열리는 스코틀랜드 킹스반스 링크스 코스.

메이저 승격 후 5승 최다 우승국...올해도 20명 출사표 변덕스런 날씨·깊은 러프·항아리 벙커 등 난코스와의 싸움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Old Course)는 골프의 성지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로서, 세계 3개 골프 코스 중 하나다. 북해의 구릉지대에 펼쳐진 이곳은 예측할 수 없는 강풍과 변덕스러운 날씨, 깊은 러프,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는 항아리 벙커까지 링크스 코스의 전형이다. 올드 코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킹스반스 링크스 코스가 있다. 역사와 명성에서 있어서는 올드 코스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코스 난이도는 링크스 코스의 난제들을 모두 갖췄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번째 메이저 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25만달러)이 킹스반스 링크스 코스(파72.6697야드)에서 열린다. 1976년 창설돼 4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 오픈. 처음에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로 열리다 199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편입돼 2001년 메이저로 승격됐다.

브리티시 오픈은 메이저 승격과 함께 한국 선수들에게 있어 약속의 대회나 마찬가지다. 메이저 승격 후 16년의 대회 중 9개국이 우승을 나눠가졌는데 한국이 가장 많은 5번의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3승)과 대만(2승)이 뒤를 이었고, 호주, 태국, 스웨덴, 잉글랜드, 멕시코, 스코틀랜드 등이 한 차례씩 타이틀을 가져갔다.

메이저 대회로 처음 열린 2001년 박세리가 우승했다. 이후 장정(2005년), 신지애(2008.2012년)에 이어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가 2015년 이 대회 우승을 통해 '커리어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올해도 한국 선수들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과 4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은 메이저 대회 2승에 도전한다.

상급 순위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둘은 평균 타수에서 있어서는 박성현이 2위, 유소연이 3위를 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다.

유소연은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반면 박성현은 강력한 드라이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본다. 둘 중 어떤 스타일이 링크스 코스에서 적합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지난주 '스코티시 여자오픈'에서 6타차 역전 드라마를 쓴 이미향(24·KB금융그룹)도 우승 후보다. 같은 링크스 코스에서 우승한 만큼 누구보다 자신감이 붙어 있다.

큰 대회에 강한 박인비는 물론이고 2승을 거두고 있는 김인경(29·한화),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희영(28·PNS) 등도 있다. 전인지(23)는 준우승 징크스를 깨고 통산 3번째 우승 역시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4주 연속 우승을 달성한다. 22개 대회 중 12승을 거두면서 시즌 최다승(15승)에도 성큼 다가선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3위 에리아 쥘 타우간(태국)과 세계랭킹 2위까지 상승한 렉시 톰슨(미국)은 한국 선수들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로 꼽힌다.

박성현

유소연

‘구간기록’ 약속 지킨 안세현에 볼 코치 “퍼펙트”

볼 코치는 선수 후원에 나선 SK텔레콤이 유망주를 선별 요청하자 별다른 고민 없이 안세현 선택



마이클 볼 코치

호주 출신의 마이클 볼 코치는 국제 수영계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다. 그의 손을 거친 유망주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난 사례는 한 두 차례가 아니다.

안세현(22·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지원 아래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볼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다. 볼 코치는 선수 후원에 나선 SK텔레콤이 유망주를 선별해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고민 없이 안세현을 선택했다.

2015년 처음 연을 맺은 뒤 2년 가까이 함께 한 볼 코치와 안세현은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8초 07로 5위에 올라 한국 여자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접영 200m 결승에서는 2분 06초 67로 2010년 최혜라의 한국기록을 7년 만에 깨뜨렸다. 최종 순위 4위로 자신이 작성한 역대 최고 성적도 사할 만에 경신했다.

안세현의 선전에는 볼 코치의 특별 주문이 숨어있다. 볼 코치는 안세현이 레이스에 돌입할 때마다 그에 맞는 과제를 내줬다. 볼 코치가 안세현에게 원하는 것은 순위도, 결승 진출도, 최종 기록도 아니었다.

볼 코치의 요구는 오로지 구간 기록이었다.

볼 코치는 50m씩 세분화된 기록표를 안세현에게 제시했다.

접영 200m에서 볼 코치가 내민 구간 기록은 초반 50m 28초4, 50~100m 구간 32초4, 100m~150m 구간 32초8, 150m~200m 구간 33초 이하다.

접영 100m의 경우에는 반환점을 26초8 이하로 통과한 뒤 남은 50m는 30초 이하로 끝내라고 했다.

기록 종목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1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수영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쟁자들의 페이스는 물론 물살의 흐름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긴장감 역

시 연습 때와는 비교가 어렵다. 연습 때 세계 기록을 밥 먹듯 경신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막상 경기 때 기록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현은 볼 코치의 주문을 거의 100% 수행했다. 유럽을 돌며 실전 감각을 익힌 덕분인지 실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기대했던 기록을 고스란히 찍자 볼 코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SK텔레콤 전담팀 관계자는 “볼 코치가 데리고 있는 선수 중 이번 대회에서 주어진 구간 기록을 제대로 소화한 이는 엠마 매키언(호주)과 세현이 뿐이었다. 연습 때 기록을 실전에서 내기가 쉽지 않은데 볼 코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 볼 코치는 순위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순위가 안 좋아도 부여 받은 기록만 냈으면 분명히 칭찬했을 것”고 귀띔했다.

안세현은 “볼 코치님은 경기 전 구간 기록을 제시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다 맞췄다. 코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퍼펙트’라고 해주셨다”고 웃었다.

한편 안세현은 이번 대회를 통해 거액의 부수입까지 거머쥐었다.

SK 텔레콤은 안세현에게 한국신기록 수립과 결승 진출에 각각 1000만원씩의 보너스를 내걸었다.

안세현은 두 종목(접영 100m·200m) 한국 신기록과 결승 진출로 4000만원을 확보했다. 세계선수권 한 달 전 프랑스의 카네영 루시옹에서 열린 2017 마레 노스트럼 투어 접영 100m에서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총 보너스는 5000만원으로 늘었다.

‘PSG 이적설’ 네이마르, 일단 바르셀로나 복귀

바르셀로나 동료들도 그의 알 수 없는 행선지에 지쳐가는 모양새
스페인 매체 마르카 “바르셀로나 동료들도 네이마르 이적설 지쳤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불거진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PSG)으로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네이마르(25·바르셀로나)가 일단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바르셀로나 현지 시선은 굵지 않다.

네이마르는 2일(한국시간) 개인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돌아왔다. 아직도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네이마르는 올 여름 이적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언론들이 일제히 “PSG가 바르셀로나에 바이아웃인 2억2200만유로(약 2940억원)를 지불하면서 네이마르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그의 이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단 당사자인 네이마르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조용히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바르셀로나 프리시즌에 합류해 3번의 연습 경기를 모두 소화했다. 3경기에서 네이마르는 3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기량을 발휘, 자신의 가치를 재 입증했다.

이후 네이마르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바르셀로나에 복귀했다.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네이마

르가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바로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팀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네이마르의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는 프리시즌과 이후에 가진 언론과의 만남에서도 행선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바르셀로나 팬들은 뿔이 났다. 바르셀로나 홈 구장인 캄프 누 주변에는 ‘배반자’라는 글과 함께 네이마르를 현상수배화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 포스터에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떠나라. 바르셀로나는 팀을 사랑하는 선수들을 위한 곳”이라면서 네이마르를 향한 불만이 적힌 글귀도 적혀있다.

또한 바르셀로나 동료들도 그의 알 수 없는 행선지에 지쳐가는 모양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바르셀로나 동료들도 네이마르 이적설에 지쳤다”고 전했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인 카를레스 푸욜은 “네이마르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뉴스



장욱현 영주시장 여름 바쁘다 바빠



무더위쉼터 현장 방문
시설 이용객 만나 폭염
피해 예방 당부하라...
운동화 뒤축 다 닳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이 비자땀을 흘리고 있다. 민생현장속으로 파고 든 장 시장은 노인들을 만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 현장 체험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지만 민생 발품팔이는 오늘도 계속된다.

장 시장은 무더위쉼터 2곳(풍기읍 서부2리 경로당, 휴천1동 광승 경로당)과 요양시설 11곳(만수촌), 물놀이 관리지역 1곳(풍기읍 금선정)을 잇따라 방문했다.

무더위 강행이 시장 행정이 보탬이 되는 탓이다.

장 시장은 노인들의 안부와 이용객들의 건강을 살피고 시설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장 시장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폭염 발생 시 건강관리 수칙 등을 설명하고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새겼다.

안전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병방기의 가동 상태 등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영주시는 홀몸노인, 장애인과 같은 폭염취약계층이 쉽게 찾아가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166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간부 공무원이 직접 담당 지역 무더위쉼터를 찾아 이용

객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시설상태를 직접 점검한다.

때문에 시는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8개소에 구명환,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안전한 물놀이 지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안전요원을 8월말까지 고정 배치했다.

9월말까지는 폭염대책 종합상황실과 운영질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폭염이 물러갈 때 까지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피해예방 홍보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장 시장은 무더위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한낮에는 지나친 야외활동과 작업을 피하고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대구 서구청 부모와 함께 어린이 환경투어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환경기초시설 견학 체험

대구 서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1-17일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학부모와 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를 한다.

지난 1일 학부모와 학생 40명이 '부모와 함께하는 환경투어'를 했다.

투어 일정은 △환경자원사업소(폐기물매립 및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견학)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견학) △국립대구과학관(신재생에너지시설 견학 및 체험) 과정으로 진행됐다.

오는 9일에는 부모님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학생들을 위해 적십자 대구지사 서구지구협의회 회원 20명이 1일 부모님 학생들과 함께 견학 체험



한다. 어린이 환경투어는 서구청이 대구시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 올해로 6회째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환경투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부모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청소년 기아체험 캠프 다녀왔어요

예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단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단원 20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성주군 삼동연수원에서 열린 2017 청소년자원봉사캠프 '풍요속의 굶주림, 청소년 기아체험 캠프'에 참가했다.

자원봉사캠프는 경북도자원봉사센터의 후원과 성주, 김천, 예천 세 개 자원봉사센터, 월드비전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청소년들이 불공정무역체험, 기후난민체험, 난민경이체험, 아동노동체험 등 다양한 체험차례표에서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둘러봤다.

그들을 돕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을 키우는 기회도 만들었다.

캠프에 참가한 장민서(김천고 1년)학생은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구촌 빈곤국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캠프를 계기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캠프는 참가학생과 관리자 100명이 저녁 끼니 굶은 식비와 차례표 참가비 160만원을 월드비전을 통해 에티오피아 디젤루나리 조 식수지원사업에 지원한다.

이주현 기자

사랑의 쿨 아이스 스카프로 건강하게 여름나기

남구 이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쿨 아이스 스카프 선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위 취약계층을 방문, 사랑의 쿨 아이스 스카프를 직접 매어주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폭염 속에서 길에서 폐지를 모으거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 등에서 여름을 나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쿨 아이스 스카프를 매어드리고 있다. △어르신문화치유사업 △홀몸노인 세탁 방역사업 △위기탈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시호 위원장은 "아이스 쿨 스카프 매어주기 사업은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달성 해요! 마요!' 근무혁신 실천 계몽운동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공단본부에서 '근무혁신 실천 10대 서약식'을 가졌다.

노사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 업무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무혁신 실천 계몽운동'의 10대 과제를 실천한다.

실천 내용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효율적인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실행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줄이기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휴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 비효율적인 업무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순환 이사장은 "근무혁신 실천 계몽운동에서 전 직원이 일·가정 양립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업무효율성을 강화해 고객 만족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행복꿈틀이 뭐예요?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기소득 5천만원 새마을 어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소머리한 고품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인생을... 생각한다

칼럼

탈(脫)원전, 공론으로 결정할 일 아니다



류 동길

승설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정부는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28.8%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건설 중인 원전을 멈춰놓고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작업을 설계·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委)는 시민배심위원을 뽑아 이들이 내린 결정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8월 중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 350명 안팎을 추출해서 공론조사를 해서 정부에 보고서만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원전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탈핵·탈원전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에서 임명한 공론화위가 원전의 운명을 가름하는 작업을 맡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여론조사나 시민배심위원 구성 또는 공론조사의 결과에 있지 않다.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공론화위에서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국가적 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론에 물을 게 있고 그래서 안 될 게 있다. 원자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이미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은 탈원전 계획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여론을 따랐다면 건설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동차가 별로 없던 당시 많은 국민은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맥아더 장군은 미합중국본부와 해군·해병대 측은 물론 그의 보좌관도 반대하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인천의 자연적 조건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적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해 인천을 선택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 든 것은 "소비자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한 것이다.

탈(脫)원전은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산업,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눈감고 감성적으

로 접근하면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에너지는 없다. 한국은 전체전력의 30%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부족 국가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태양광과 풍력 대체는 환상에 불과하다. 탈원전은 전기료 급등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력난이 물고 울 산업과 생활전반에 미칠 파장, 다시 말해 국가적 재앙이다.

원전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전기료가 뛰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發電)은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다.

한국은 원전기술 거의 전부를 국산화했고 세계 최고의 안전도와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원전수출 강국인 우리가 탈원전 국가가 된다면 원전수출을 할 명분을 잃는다.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600조원에 이른다. 원전 운영까지 포함하면 원전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이런 걸 외면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쩌자는 것인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는 엄청나지만 더욱이 원전을 폐기할 경우의 예산낭비는 천문학적이다.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과 공론화작업을 한다는 건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할 것이다.

원전문제는 사이버 전문가 아닌 진짜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라. 탈(脫)원전, 공론으로 결정할 일은 결코 아니다.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면 그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같은 논리를 펴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원전 후폭풍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전기료인상 계획이 없다는 정부 방침에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계획에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기조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됐고,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5년 이후 발전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직접 홍보전에 뛰어든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 설비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족한 10GW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갑작스런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느니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배경이 의심스럽다. 공론화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동안의 공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위로 하여금 통과외레를 밟으라는 의도는 아닌가.

문제는 문재인정부 임기 이후 상황이다. 국회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0일 보고서를 내놓고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LNG 비중을 늘리면 연간 발전비용이 지금보다 20%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박근혜정부 때 산업부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예측 등을 근거로 2029년 기준 전기요금이 40%까지 오른다고 추정한바 있어서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에너지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종업원 감축, 해외이전 고민하는 제조업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구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소상공·자영업업이 아니라 버거운 제조업체들이 폭등한 최저임금의 직격탄에 비틀거리고 있다.

대구성서공단의 경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되자 인건비 비중이 큰 지역 제조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벌써부터 인원 감축이나 근무 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심지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도금 업체의 경우, 현재 일하는 근로자는 약 100명 정도지만 올해 말까지 30명 이상이 이 회사로 나가야 할 사정에 놓였다. 내년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 인건비만 월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모두 12만명 정도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날벼락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 임금 인상액의 9%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처방책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계명대학교 신진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경영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긴축 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 여론조사를 보면 알바생의 76%가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고용주의 73%는 우려를 표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증가이지만 기업이나 고용주한테는 비용 증가다. 고용촉소나 불가상승 압박 등 경제전체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시급 1만원이던 세급으로 매출 금액이 연간 1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1년간 시행해 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짚어 없다. 일관성도, 공정성도,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릴 따름이다.

나 의 제언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 높아



이 만 희

김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근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나 협박가수 아이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사소한 다툼이나 트집을 잡아서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연인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일조차 '연인'이라는 발미에 망설여지는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

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7536건, 2013년 7189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233명이나 될 만큼 폭력의 강도도 세다.

이 같은 수치는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해 평균 4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여성보복 폭력 등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을 지정

중증 단속과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 잠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폭력발생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전문가상담으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적 폭력의 경우 병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어 되는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이다. 또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재발률이 높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가정 내 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된 아동들 역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폭력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대물림 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불행이 유전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대표 김성용 |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언론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매미소리에 은어가 춤추는 봉화에서 Hot여름! Cool하게!

여름이다 땀속까지 시원한 봉화로 떠나자
산사에서 울리는 청아한 선율에 빠져보자
여름 산타 반겨주는 분천역에서 놀아보자
봉화가 바로 지상천국이요! 무릉도원이다

한여름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유명 피서지마다 휴가 인파가 넘친다.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산과 바다, 계곡 어디든 좋으며 여행을 떠난다. 땀속까지 시원한 곳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 봉화는 온통 잔치 분위기다. 봉화은어축제가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곳이 봉화다. 자, 이제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로 떠나자. 매미 울음소리도 정겹기만하다. 지금 봉화는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생생현장' 코너를 통해 봉화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했다. 얼마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봉화를 찾았다. 정 의장은 "현장에서 국정 운영의 답을 찾으려고 봉화를 방문했다"면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한 은어축제가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은어아 나랑 놀자

'제19회 봉화은어축제'가 'Hot여름! Cool하게! 은어잡GO~'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축제는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은어숯불구이 등 다양한 은어체험행사를 비롯,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행사 등으로 오는 5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를 위해 지난 2월, 1급수에만 산다는 어린 은어 54만 마리를 들여와 키운 봉화군은 맨손으로 은어 잡기와 다슬기 잡기 체험, 수박서리, 은모래 비치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은어축제는 반두 또는 맨손 은어잡이 등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반두 은어잡이는 참가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강에서 반두를 이리저리 끌며 은어를 잡는다. 봉화군은 축제 기간 은어잡이가 열리는 내성천(길이 3.5km, 폭 8m)의 수심을 30~40cm로 낮춘다. 또 반두로 은어를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은 '어신왕'으로 선발하고 100만원의 시상금도 지급한다. 내성천 인근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설치된 대형 수조(가로 15m·세로 15m) 4곳에서는 맨손잡이 은어축제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잡은 은어를 내성대교 아래에서 숯불로 은어구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어신을 뽑은 은어잡이대회 장면이 나왔는데, 55마리 이상을 잡은 사람이 순위권에 들었다. 맨손으로도 잡는 행사장도 있어 남녀노소 참가해 수박맛 난다는 은어구이와 튀김을 즐기고 있다. 봉화은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5만여명이 찾아 227억원의 경제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말 그대로 은어축제는 아이들에게는 생태교육의 장, 부모들은 어린시절 향수를 맛볼 수 있는 추억의 장이다.

■여름 산타 봤니

은어잡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산골 마을이 화려하게 변신한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로 가보자. 이곳은 200여명이 사는 산골 마을이다. 태백산과 청량산, 통고산 등 백두대간 산자락에 둘러싸여 외지인의 발길이 뜸하고, 빈집이 늘어간 마을이다. 적막감이 감돌던 마을이 이제는 들썩이고 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분천역이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의 기차지가 되면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명소 봉화 분천역에 꾸며진 산타마을이 지난달 22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경북도·봉화군은 소천면 분천역 일대에서 '2017년 한여름 산타마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개장한 '한여름 산타마을'은 겨울 산타마을의 이미지를 여름 컨셉에 맞춰 시원한 느낌의 산타 조형물을 조성하고 산타셔틀·레일바이크·미끄럼틀슬라이드·물안개터널 등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분천역 일원 산타마을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 단지를 꾸몄다. 개장 첫날인 22일 요들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선보이고 분천-비동 백두대간 협곡열차 따라 낙동강 비경을 감상하는 산타하이킹도 펼쳐졌다. 코레일은 '여름 산타마을' 운영기간 분천역에는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중부내륙 관광열차(O-TRAIN)와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등 관광전용열차와 무궁화호를 하루 14회 운영한다.

■경북의 최고 몸짱은

봉화은어축제와 함께하는 전국보디빌딩대회와 2017미스터&미즈경북 선발대회가 3, 4일 이틀간 봉화은어축제장 일대에서 막 오른다. 이 대회는 6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은어축제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 경북도체육회, 봉화군, 경북도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했다. 첫날 보디빌딩 22체급의 경기가 진행되며 둘째 날 보디빌딩 11체급, 비키니 2체급, 보디피트니스 2체급, 클래식 5체급, 피지크 2체급, 장년부 1체급, 중년부 1체급이 진행된다. 4일 오후 6시부터는 봉화은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남·여 뷰티바디 7체급 등 총 31체급의 경기가 나눠 진행된다. 경북도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전국보디빌딩대회와 미스터&미즈경북선발대회가 봉화은어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가, 선수와 임원들에게는 대회도 참가하고, 더불어 최고의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인 한마당 큰잔치

2일 오후 내성천 반두잡이 체험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반두잡이 체험 및 봉화인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봉화인 한마당 행사에는 10개 읍면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직원들을 포함, 10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한다. 은어 반두잡이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은어종이배 경주', '수중 줄다리기', '내성천 은어를 살려라' 등 3개의 차례표를 선보였다. 올해 처음인 '내성천 은어를 살려라'는 수조에 담긴 은어를 손으로 물을 퍼 담아 은어를 구출하는 게임이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합심, 물을 많이 퍼 담아 야만 은어를 구출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이모씨(61·농업)는 "봉화인 한마당 행사를 통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박노숙 봉화 군수는 "봉화인 한마당 행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서, 모두 함께 축제를 즐기는 자리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음악회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 찾아가는 음악회가 3일 봉화은어축제가 열리는 봉화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화려하게 막 오른다. 행사에는 김정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노숙 봉화군수, 봉화군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도정 정책인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의 주요성과와 봉화군정 성과에 대해 음악을 통해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을 주제로 귀농귀촌 일번지 부농 경북, 할매할배의 날, 맞춤형 복지, 청년취업, 균형개발정책 등 경북도 핵심성과다.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저장시설을 갖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된 봉화은어축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산타마을과 협곡열차,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조성 등 군정성과를 음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신렐라 교수와 텔라벨라 밴드, 인간도 솔리스트 앙상블 등 국내 최고 음악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로 구성된 오페라를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박노숙 봉화군수는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봉화에서 개최하게 돼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전상기 기자

